

미군 정보요원의 증언...5·18 발포 명령자 밝혀지나

김용장씨 오늘 서울서 기자회견

계엄군 시위대 위장 투입 등 밝혀질 듯
전두환 5월 21일 광주 회의 참석
소형 헬기 M60 사격 등 이미 증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로 위장한 계엄군(편의대)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운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한미군 501 여단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0년 5월 당시 편의대가 암약하며 광주 MBC 방화 등을 주도했다'는 증언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김씨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보안부대 윗선에서 광주에 편의대를 운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송기를 통해 최소 30여명 이상의 요원들이 투입됐고 이를 미 국방성에 보고했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계엄군의 편의대 활동은 시민들의 체험담과 군 기록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었다.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공개한 '5·18 편의대 정밀투사' 자료에 따르면, 전교사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분석'엔 "2군 사령관-비독판식 분할 점령, 과감한 타격, 다수 편의대 운용 등 지시"라고 기록돼있다. 또 보안사가 발간한 '5공화국 전사'에서도 "5월

27일 도청 재진입작전 수립 시 계엄군 편의대가 파악한 각종 정보들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씨의 구체적 증언은 지난 1980년 5월 편의대 활동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시 편의대는 시위 첩보·정보수집, 주동자 색출·체포, 시위대 위장·무장상황 파악 보고, 시위대의 모략·교란·선무공작, 지역감정 조장, 무장 필요성 조장 등의 특수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미 정찰위성 2대가 2~3시간 간격으로 회전하면서 광주 전역에 대한 통신 감청을 진행하는 등 미국이 당시 광주 상황을 살살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내용도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1980년)5월 21일 점심시간 즈음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헬기를 타고 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회의를 했다"며 "이 회의에서 사살명령(발포명령)이 하달됐다는 점을 상부에 보고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1일과 27일 두 차례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UH1H라는 소형 헬기에서 M60으로 쏘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씨는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14일 광주를 방문,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시민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위하여...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행사가 10일 오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허석 순천시장과 미국·중국·멕시코·이스라엘·이집트 등 26개국 외교사절이 '미세먼지 등 공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과 동물의 상처를 나누와 식물 등이 자라는 녹색초원을 일궈 치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녹색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택시 운전사' 김사복·힌츠페터 5·18묘역에 나란히 묻히나

안장심의회, 유품 구묘역 이장 추진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 씨와 그의 도움으로 5·18 참상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5·18 구묘역에 나란히 안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구묘역 안장심의회'는 13일 힌츠페터가 남긴 유품을 5·18 구묘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한다.

조만간 5·18구묘역으로 이장될 김 씨의 유해와 나란히 안장하기 위한 절차로, 현재 힌츠페터 유품은 구묘역 인근 힌츠페터 기념정원에 안장돼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독일에 있는 힌츠페터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경기도 양주시 한 성당묘지에 묻힌 김 씨 유해는 지난해 12월 안장심사위원회를 통해 5·18구묘역 안장이 결정된 바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2일 "두 분 공동 안장에는 심의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위 결정이 나오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힌츠페터는 1980년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5·18 광주를 취재했다. 1980년 5월20~21일, 23일 두차례 김사복 씨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현장에서 취재해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렸다.

힌츠페터는 지난 2003년 제2회 송건호언론상을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 힌츠페터(왼쪽)와 김사복.

받으며 "용감한 택시기사 김사복씨에게 감사하다.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간암에 걸려 5·18이 일어난 지 4년6개월 만인 지난 1984년 12월19일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김씨는 1980년 당시 서울에서 파레스호텔 소속 외국인 전용 택시를 운행했다.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해 외신기자들이 김씨의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장준하 선생 의문사 현장 답사 때 힌츠페터와 김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지난해 김씨의 아들 송필씨에 의해 뒤늦게 공개되면서 5·18 이전부터 둘이 인연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배우 송강호가 김사복씨 역할을 맡고, 토마스 크레취만이 힌츠페터 역을 맡았으며, 관객 1218만 9195명을 동원, 역대 영화 관객수 11위에 올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국민 행복 여정에 함께 하겠다"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축하 메시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축하했다. 2년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정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독일 언론에 기고한 '평범함의 위대함'을 들면서 광주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감정을 언급했다. 그는 "이 글의 첫 단어는 '광주'였다. 5·18민주화운동부터 촛불혁명,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었다"며 "대통령님의 글은 저와 우리 시민의 가슴을 울렸다"고 적었다. 이어 "평범한 사람들의 더욱 견고한 연대와 역량결집을 통해 오월의 정의로운 역사를 지켜내겠다"며 "1980년 광주에 간혀 있던 5·18을 대한민국과 세계의 5·18,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광주가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에 앞장서 어려움에 부딪친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하

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광주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같은 날 축하 메시지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전남이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년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시간이었다"며 "국민과의 소통의 장인 '국민 청원제'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참된 의미를 모두에게 되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도 끊이지 않고 소중한 결실이었다"며 "전남에서도 의약품 지원, 문화 예술 교류, 산림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통해 통일 훈풍이 전남에서 뿜어 나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감사와 기대도 잊지 않았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전남도민에게 큰 희망을 심어 주고, 전남이 새로운 비전을 그릴 기회를 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 2주년을 축하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을 전남이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019. 5. 14(화) ~ 17(금) 4일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9. 5. 25(토) ~ 28(화) 4일간
주 개최지 익산시 (전라북도 일원)

익산시